

러시아의 국제상관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Mercantile Custom in Russia

이석윤(Suk-Yun Lee)*

요 약 (ABSTRACT)

A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mercantile custom of Russia.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new Russia have to make a relation external world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geostrategic importance and natural resources in Russia attracted constant interest of western countrie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is country and hundreds of Korean and western companies already operate in Russia and their activities are more and more of a long-term character. So, the settlements of trade and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Russia are very important. It includes effective methods of trade settlement, factors of successful negotiation, differences of trade customs and business environment.

Key Word : 국제상관습(international mercantile custom), 무역결제방식(trade settlement), 한·러무역, 러시아환경, 협상 성공요인

<목	차>
I. 서론	3. 신뢰성 및 관공서 일처리 4. 기타
II. 러시아 개관 1. 시장규모 2. 소비특성 3. 생활수준 4. 상권상태 5. 수입상품 6. 유통경로 및 유통구조	IV. 한·러간 무역결제 1. 한·러간 무역결제 2. 한·러 무역결제에 대한 대처 방안
III. 러시아 관습 1. 종교생활 및 민족성 2. 예절	V. 한·러 현황과 향후 전망 1. 한국과의 관계 2.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 3. 전망
	* 참고문헌

I. 서론

과거 미국과 더불어 전세계 정치·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소련은 경제구조의 비효율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초빙연구원.

성, 지나친 관료화, 독재적 정치 등 대내적 요인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미국과의 군비경쟁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하여 붕괴하였고 1992년 러시아라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었다. 즉, 구소련의 붕괴는 새로운 15개 공화국의 탄생을 야기했으며 또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나타난 사회주의에 대한 70년간의 인류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러한 20세기 후반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인 사회주의 붕괴과정에서 러시아는 새롭게 탄생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과거 제정 러시아와 구소련을 승계하였다. 따라서 현 러시아에는 소련식 사회주의적 계획구조와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계획과 시장의 부조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정책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세계의 최고의 지식층, 천연자원 그리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높은 경제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이행기 초기인 1992년에 약 2000%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과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의 만연 등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병폐도 '순수 자본주의형 체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원시적 자본축적(primitive capital accumulation for wild capitalism)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체제전환의 진전을 보여 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수교초기에 일방적인 애정으로 접근하였으나 소련이 붕괴된 현재 무관심과 무시로 러시아를 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투자 및 영업활동을 하는 한국기업들 상당수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러시아에 접근하여 수교초기에 급격히 증가한 지사 수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다. 이는 지사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기업들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기업의 조급성과 단기적인 안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전에 비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우호적인 인지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

러시아는 정치적·경제적·지리적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한국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4대 주변 국가이다. 이러한 중요도에 비해 러시아에 대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인식은 제한적이며 단기적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이해 부족과 오랜 기간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 시장에 접근하는 노력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러시아와의 교역확대를 통해서 양국간 발전된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먼저 러시아시장과 러시아인의 관습에 대하여 개괄

1) 저자에 따라서 소련의 붕괴를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IMF 및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그 자체의 역사적 붕괴로 보는 견해(Ralf Dahrendorf, Francis Fukuyama, Jeffrey Sachs), 둘째, 스탈린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된 소련형 사회주의 붕괴로 맑스나 레닌이 구상한 사회주의 이론과 체제는 아직 유효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本原正雄), 셋째, 정치·경제체제 시각에서 분석하여 소련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소련형 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로 붕괴의 필연성과 자본주의에로의 이행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견해(Bernard Chavance, Peter Murrell)로 볼 수 있다. (박찬익, "사회주의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비교경제연구』, 통권 5호, 한국비교경제학회, 박영사, 1997년)

적으로 설명하고 국제무역거래에서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요 무역관습²⁾ 중 거래결제방식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향후 한·러간 무역 장애 요인과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 러시아 상담요령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본 논문은 러시아시장의 방대함과 그 거래형태의 지역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하여 현재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상관습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한·러간 무역확대와 기업의 러시아 진출에 미진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러시아 개관

먼저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러시아 시장규모, 소비자들의 특성, 생활수준, 상권, 유통경로 및 구조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1. 시장규모

약 1억 5천만명의 러시아의 1997년 소매유통액은 864조 루블로 전년 756조 루블에 비하여 102%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4분기 201조 루블(전년 동기에 비해 100.4%), 2/4분기 206조 루블(100.5%), 3/4분기 215조 루블(101.4%), 4/4분기 241조 루블(106.3%) 증가하였다. 1997년 소매유통상품 구조를 보면 식료품은 약 48%를 차지했고 비식료품은 약 52%를 점유하고 있다.

외환부족과 수입억제정책으로 수입규모는 매년 축소되어 1992년에 350억 달러였으며 1993년에 268억 달러로 다시 격감하였다. 1994년 이후 대외교역은 증가세로 반전되어 1995년 수입규모는 579억 달러(CIS로부터의 수입 및 비공식 수입 포함)에 달하였다. 1995년 전체 유통에서 수입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를 점유했으며 1997년 수입액은 735억 달러였으며 그 중에 수입상품 점유율이 더욱 증가하여 약 54%를 차지하였다.³⁾

대외교역에 있어 바터교역⁴⁾의 비중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5년 중 러시아는 100

2) 관습(custom)이란 한 사회내부에 역사적으로 발생하여 계속 반복됨으로써, 널리 승인되어 있는 사실적인 행위양식을 말하며 관습 중에서 상업계에 확립되어 온 상거래 행위양식을 상관습(mercantile custom: trade usage)라 하며 국제무역거래에 관용되고 있는 상관습을 국제상관습(international commercial custom: international mercantile custom) 또는 국제무역관습(custom of international trade)이라고 한다.(강원진, 『무역실무』, 박영사, p. 173)

3)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1998,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татистике, М., 1998.

4) 바터는 구상무역의 한 유형으로 현금거래없이 동일한 가치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인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즉 화폐의 이전없이 상품이 교환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러시아는 개도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볼 때 근본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구상무역을 원하고 있다. 경화의 부족이나 기술이전의 필요성 등은 공통적인 이유이지만 다른 점은 구상무역을 기초산업발전이나 수출 증대 혹은 현대화 과정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미 2차대전 당시 선진 공업국이었고 따라서 구상무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생산시설의 향상을 도

여개국과 바터교역액이 94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전체 대외교역액의 7.5%를 점유하였다. 非 CIS국가들과의 바터교역은 전년도 대비 20.6% 감소한 반면 CIS국가들과의 바터교역은 1.6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바터교역의 증가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경우 거래에 필요한 외환이 부족하고 대외 신용결제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인 연료 및 원자재 등 일차상품을 교역하는 데 현금 및 현물거래가 선호되고 있다.

<표 - 1> 러시아의 바터교역 실적

구 분	1994년	1995년	증감율(%)
수 출	4,127.3	4,943.5	19.8
수 입	3,901.2	4,465.6	14.5
수 지	226.1	477.9	
(非 CIS국가들과의 거래)			
수 출	2,691.9	2,240.2	-16.8
수 입	1,554.8	1,130.0	-27.3
수 지	1,137.1	1,110.2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러시아연방 관세위원회, 1996년, С. Аукуционек, "Бартер в россий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февраль 1998

주민의 소비량 추이(소매유통액)를 보면 1994년 중 식료품의 소매유통액은 99조 루블로써 전체 소매유통액의 45.8%를 차지했으며, 1995년 1/4분기 중 식료품의 소매유통액은 45조 1천억 루블로써 전체 소매유통액의 47.1%를 차지하고 있다. 1994년 중 비식료품의 소매유통액은 117조 루블로써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으며, 1995년 1/4분기 중 비식료품의 소매유통액은 50조 5천억 루블로써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2. 소비특성

특징적인 소비관행으로 지역간 종족간 또는 종교계파간의 특징적인 소비관행은 없으며 다만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신흥부유층(특히 벼락부자의 경우)은 충동구매나 과도소비지출이 많다.

가계지출상의 주요 소비지출 대상으로 러시아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고 소

모하는 것이며 경화의 질약, 대용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그리고 서방시장에의 진출 등은 부수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윤덕현, "한국기업의 구상무역현황과 전략적 대응관리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논문집』, 제5집,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1994년, p. 133), 1995년 전체수입 579억 달러 중 바터에 의한 수입은 44억 달러로 약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득 대부분을 소비한다. 가계소비 지출은 1992년 전년대비 2.7% 감소, 1993년 전년대비 0.4% 감소, 1994년 전년대비 2.8% 감소, 1995년 전년대비 2.6% 감소, 1996년 전년대비 2.4% 감소하였으나 1997년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⁵⁾ 일반 주민들의 경우 엔겔계수가 70-80에 육박하고 있어 소득의 대부분을 식료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몸치장에 관심이 많아 몸치장용 지출(화장품, 의류, 신발 등)이 많고 자동차, 전자제품 구입에 관심이 많다. 여행과 문화생활에 지출을 많이 하고 주말이면 '다차'라고 하는 별장에서 가족단위로 휴식한다. 술과 생일파티 등 유흥에 대한 지출이 심하며 주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1995년 5월-6월에 전체 지출의 20%를 넘어섰다.

<표 - 2> 주요 식료품의 가격(1996년 6월말 현재)

(단위 : 루블)

구 분	소매가격	도매가격
버터 1Kg	17,825-18,230	16,600
육류 통조림 1통	6,915	5,200-5,500
닭고기	10,280	9,300-9,800
그레치카(혼합곡물제품)	4,377-5,100	4,000-4,300
쌀	4,000-5,100	4,250-5,500
밀가루	3,000-3,600	2,900
마카로니 400g	4,625-6,620	2,200-2,300
설탕	3,500-4,000	3,100
소고기	12,450-12,920	-

자료 : 이즈베스찌야, (환율 5,100루블 = 1달러)

한편 여유자금은 급격한 환율인상과 관련하여 달러화 형태로 보유하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한다는 상업은행들의 대대적인 광고와 더불어 상업은행에 대한 저축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에 대한 불신풍조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최근 달러에 대한 욕구와 함께 부동산 등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1996년 현재 주민들의 저축동향은 루블화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7-30조 루블이며 전체 월소매유통액의 60%에 달하고 은행구좌 및 증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38-40조 루블이며,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3-25백만 달러이다.

1992년 개혁 당시 일반시장⁶⁾ 59%, 국영상점 41%에서 1993년 일반시장 77%, 국영상점 23%, 1994년 85% 대 15%, 1995년 87% 대 13%, 1996년 91% 대 9%, 1997년 92% 대 8%로 일반시장의 역할은 증대하였다.

5) Госкомстат, там же, с. 209

6) 개혁 당시 러시아에는 국영상점과 리눅(рынок)이라 불리는 자유시장이 존재하고 있었고 점차 사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영상점의 비중은 감소하고 리눅을 포함한 사영상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표 - 3> 러시아 주민의 지출구조

(단위 : 조 루블, %)

지출분야	1994년		1995년 1/4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소득액	360.9	100.0	156.7	100.0
상품 및 서비스구입	239.3	66.3	112.2	71.6
세금, 공과금 지불	26.4	7.3	12.2	7.7
은행, 증권투자	21.8	6.0	8.5	5.4
경화매입	56.5	15.7	26.1	16.7
현금보유	16.9	4.7	-2.2	-1.4

자료 :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 1996

또한 구매시기에 있어 반소매서츠 등 여름상품은 초봄에, 외투 등 겨울용품은 가을에 주로 구매하고 있는바 대체로 구매시기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다소 빠르며 이는 과거에 물품부족 현상을 심하게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기간(7-8월)은 비수기로 볼 수 있으며 봄, 가을이 가장 큰 구매시기이다.

3. 생활수준

1992년 본격적인 개혁추진 이래 생활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실제소득은 1992년 전년대비 47.5% 감소하였고 1993년에는 1992년에 비해 16.4%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12.9% 증가, 1995년 15.1% 감소, 1996년 0.7%감소, 1997년 3.4%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1인당소득은 감소추세이다. 1997년초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은 전체 주민의 22%인 31.9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1996년에는 24.7%)

<표 - 4> 러시아 주민생활수준 지표

구 분	단 위	1995년	1996년	증감율(%)
평균화폐소득	천루블	533	779	46
실제가처분소득	천루블	na	na	na
명목평균월급여	천루블	482	800	65.9
실제평균월급여	천루블	na	na	na
명목평균임금	천루블	183	302.3	65.1
실제평균연금	천루블	na	na	na
최저생계비	천루블	264	369	39.7

자료 :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 1997

n/a : not available

<표 - 5> 러시아 주민소득원 구조 (1996년)

구분	비중(%)
임금	43.4
사회보장비	12.8
재산소득	5.1
기업활동(과의활동)	38.7
합계	100

자료 :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 1997.

그러나 개혁추진결과 소유계층이 등장하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보유가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로정체현상이 빈발한 바 실제 명목임금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인 소득원을 통한 소득증가로 실제 생활수준이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표 - 6> 러시아 소득층별 주민구성

월평균소득	(단위 : %)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제 1그룹(최하위층)	11.9	6.0	5.8	5.3	5.5	6.2	6.2
제 2그룹	15.8	11.6	11.1	10.2	10.2	10.7	10.6
제 3그룹	18.8	17.6	16.7	15.2	15.0	15.2	15.1
제 4그룹	22.8	26.5	24.8	23.0	22.4	21.5	21.4
제 5그룹(최상위층)	30.7	38.3	41.6	46.5	46.4	46.4	46.7
지니계수	0.260	0.289	0.398	0.409	0.381	0.375	0.375

자료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1998, М., с. 223

주 : 소득계층은 20%로 나누어져 있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제 1그룹)은 감소하였으며(11.9%, 6.0%, 5.8%, 5.3%, 5.5%, 6.2%, 6.2%) 중산층(제2, 제3그룹)의 점유율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고소득층(제 5그룹)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1년 개혁이전 중산층의 비중은 34.6%였으나 1992년 개혁 원년 이들의 비중은 29.2%로 감소하였고 1997년 25.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중산층의 몰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체인구에서 20%를 차지하는 최상위층의 국민소득 비중(제 5그룹)은 1991년 30.7%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7년 46.7%을 차지하는 등 일부 계층의 부의 독점화 현상은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소득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1991년 0.260에서 1997년 0.375로 증가하였으며 1994년에는 0.409로 가장 소득이 불균등하였다. 이러한 소득불균등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더욱 더 심화되었다.

<표 - 7> 러시아 지방별 최저생계비 이하 주민비중 (1995년)

지 방 명	지역전체 주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 주민비중(%)	러시아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주민 중 비중(%)
러시아전체	25.0	100
북부지역	23.6	3.5
북서지역	26.4	5.3
중부지역	24.1	17.7
불가바트카지역	30.5	6.4
중부흑토지역	23.2	4.5
불가지역	28.7	12.0
북카프카즈지역	32.0	13.9
우랄지역	30.7	15.5
서시베리아지역	24.1	9.0
동시베리아지역	27.3	6.2
극동지역	28.8	5.4
칼리닌그라드	28.3	0.6

자료 :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 1996.

1998년 8월 모라토리엄 이전까지 러시아 경제는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긴축통화, 금융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인한다. 그러나 그 긴축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여 주민들의 화폐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득감소는 국내시장의 구매력감소와 상품 유통액의 감소를 초래했고 더 나아가 소비재 제조분야의 생산감소를 가져왔다. 주민들의 실제소득은 1994년 중 12% 감소하였는데 1995년 1월-9월 중 실제 주민소득은 18% 감소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및 최저연금과 최저생계비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바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의 17%에 불과하고 최저연금은 최저생계비의 52%에 불과하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 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다. 평균 월급여는 최저생계비의 1.8배, 평균 연금은 1.1배에 불과하고 육아보조금은 육아최저비용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월급여 및 연금의 구매력은 각각 31%, 15% 하락했다.

1995년 9월 중 평균 월급여는 565천 루블로써 전년 9월 대비 2.2배 증가했으나 이 기간 중 소매가격은 3.1배 증가하여 실제 주민소득은 29% 감소했다. 주민화폐소득에서 월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기업체들의 생산단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지나치게 낮은 월급여 수준 및 빈발하고 있는 임금체불사태의 발생에 있다.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석유 등 원자재 채굴산업, 전기에너지산업, 은행 및 보험업, 건설 및 통신업분야 등이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 나타난 임금수준은 실제 임금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과중한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써 기업체들은 각종 상여금, 기타 격려금 등의 형태로 위장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1995년 10월 1일 현재 체불된 임금총액은 1조 루

블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체임금의 17-19%가 적기에 지불되지 않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36-40%, 건설분야는 22-28%, 제조업분야에는 21-26%의 임금이 적기에 지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실질임금수준의 지속적인 하락, 임금 체불사태의 빈발 등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1995년 1월-9월 중 파업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4.5% 증가하였고 교육 및 석탄산업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6년 중 초과임금세가 철폐됨으로써 임금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였으며 인플레이가 완전히 진정 되어 1996년 중 평균 월급여는 80-85만 루블로써 1995년 대비 1.6배 증가하였고 월 인플레이가 2.5-3% 수준을 유지하여 평균 월급여는 95만-100만 루블로써 1995년 대비 1.8배 증가하였다.⁷⁾

현재 모라토리엄을 어느 정도 극복함에 따라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복국면에 진입하면서 고용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1996년 전체인구는 147.6백만 명으로 전년대비 20만 명이 줄어든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72.7백만 명으로 전년대비 10만 명 줄었으며 1996년 중 총 고용인원은 66.3백만 명으로 1995년 대비 70만 명이 감소하였고 노동부의 평가에 따르면 실업률은 3.2-3.5% 수준이다.⁸⁾

4. 상권상태

광활한 러시아는 11개의 지방상권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가장 중심이 되는 물류분배센터는 중부 경제권의 모스크바이다. 북서부 경제권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이며 불가강 경제권으로 로스토브-나 돈누시가 중심지이고 북부 경제권은 무르만스크·아르한겔스크, 중부혹토 경제권은 벨고로드·쿠르스크·리페츠크·탐보프·보로네즈, 불가바트카 경제권은 니즈니 노보고라드, 북카프카즈 경제권은 소치·노보로시스크, 우랄지역 경제권은 예카제린부르크와 페름, 동시베리아 경제권은 이르쿠츠크·크라스노야르스크·노틸스크, 서부시베리아경제권은 노보시비르스크, 극동지역 경제권은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가 중심지이다.⁹⁾

모스크바를 포함하고 있는 중부지역의 소매유통량(1993년, 1994년)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으며 다음으로 우랄지역, 서시베리아지역, 불가지역, 극동지역, 동시베리아지역, 북서지역, 북카프카즈지역, 불가바트카지역, 북부지역, 중부혹토지역이며 1인당 소매유통량 역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1996년, 1997년)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북서지역, 극동지역, 서시베리아지역, 북부지역, 동시베리아지역, 불가지역, 우랄지역, 중부혹토지역, 불가바트카지역, 북카프카즈지역이다. 시베리아지역의 소매유통량은 증가추세에 있어 극동 및 서시베리아지역을 중심으로 소매유통량은 증가하고 있다.(표 - 8 참조)

1993년 10월 이전에는 중앙아시아인들이 일반상가의 상권을 잡고 있었으나 10월사태 이후 대부분 축출되었다가 다시 복귀하여 상권을 잡아가고 있다. 현재 마피아집단이 러시아

7) Госкомстат, там же, с. 713.

8) Госкомстат, там же, с. 173.

9) 『러시아 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6년.

상권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매월 이익금의 20% 내외를 바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으며 마피아 중에서는 체첸인 등 카프카즈 민족출신으로 구성된 집단이 가장 강력하다. 모스크바를 벗어나려는 지방중심도시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중요한 정치, 경제적 결정들이 모스크바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 - 8> 러시아 상권별 소매유통액

(단위 : 십억 루블)

상 권 명	1993년	1994년
중부지역	17,195	67,198
우랄지역	7,274	24,503
서시베리아지역	6,149	21,546
불가지역	5,432	19,246
극동지역	3,851	13,939
동시베리아지역	3,657	12,876
북서지역	3,114	12,733
북카프카즈지역	3,760	12,459
불가-바트카지역	2,837	9,658
북부지역	2,886	9,629
중부흑토지역	2,229	8,181
칼리닌그라드	375	1,385
합 계	58,762	213,430

자료 :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 1995

<표 - 9> 지역별 1인당 소매유통량

(단위 : 천 루블, %)

	1995년	1996년	1997년(전년 대비 증가율)
러시아 평균	3,737	5,150	5,898(102.6)
중부지역	6,306	8,947	10,460(103.7)
우랄지역	2,840	3,963	4,641(105.1)
서시베리아지역	3,788	4,881	5,569(101.4)
불가지역	2,815	4,025	4,874(107.4)
극동지역	3,866	5,170	5,727(99.2)
동시베리아지역	3,538	4,800	5,019(93.6)
북서지역	4,588	5,666	6,023(94.0)
북카프카즈지역	1,854	2,731	3,149(101.8)
불가-바트카지역	2,738	3,510	3,979(99.1)
북부지역	3,963	4,962	5,367(98.2)
중부흑토지역	2,600	3,559	4,012(98.5)
칼리닌그라드	3,360	3,872	4,385(108.1)

자료 : Goskomstat,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1998, M., c. 585.

5. 수입상품

최근 소비재를 중심으로 시중에는 수입상품이 범람하고 있는바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9%를 점유하였고 1996년에는 54%로 증가하고 있다.

<표 - 10> 수입상품의 러시아 시장점유율 (%)

품 목 명	1995년 12월
남성와이셔츠	57
남성바지	46
남성단화	72
여성블라우스	65
칼라 TV	84
비디오	97
초콜렛	53
마카로니	51
육류통조림	50
치즈	45
소시지	34
초콜렛캔디	25

자료 :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 1996.

지역별로 보면 우랄서부의 소위 러시아 유럽지역에는 독일 등 서유럽 국가나 미국의 진출이 활발한 반면 시베리아, 극동지역은 일본, 한국 등의 진출이 활발하다. 러시아 시장에서 외국기업 특징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 시장이 형성·발전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의 마케팅 노력여하에 시장점유율이 크게 의존되며 러시아 소비자들의 유명상표 인지도가 아주 낮다¹⁰⁾는 점에 기인한다.

1995년 12월 설문조사결과 소매업체의 71%는 수입상품 취급을 선호하며 그 주요 원인으로 수입상품의 빠른 회전율을 첫째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높은 마진률, 장기보존 가능성, 좋은 포장 등을 들고 있다. 소매업체들의 62%는 높은 품질때문에 유럽, 미국, 캐나다 및 일본 제품의 취급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매업체의 30%는 낮은 가격, 많은 물량제공 등으로 중국, 한국, 홍콩제품의 취급을 선호하고 있다.

10) 1998년 4월 스페인 소비자(1,200명)와 러시아 소비자(1,600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러시아 소비자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스페인 소비자보다 낮다. 러시아 소비자는 스페인 소비자들에 비하여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상표를 상품이나 형태를 표시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상품구매시 가격, 품질 등에 비하여 상표는 우선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Юрий Полетаев и Дмитрий Шмитов, "Магические бренды", Монитори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М., No. 6, 11-12, 1998)

6. 유통경로 및 유통구조

(1) 유통경로

1995년 중 수입상품이 유통되어 반입된 경로를 보면 정규수입상이 71%를 점유하고 있다.

<표 - 11> 1995년 수입상품의 반입경로 (%)

구 분	비 중
상업구조(수입업체 등)	71
개 인	18
국가구조(국영업체 등)	9
거래소	1
기 타	1

자료 :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 1996

1995년 중 수입상품이 유통되어 반입된 경로를 보면 식료품의 경우 일반 수입회사가 69%를 점유하고 있으며 비식료품은 61% 정도를 점하고 있다. 국가분배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유통시스템이 혼란을 겪고 있으나, 품목별 특성이 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수입업체가 도매상 혹은 소매상을 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은 대형딜러 혹은 판매상(distributor)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표 - 12> 1995년 수입상품의 반입경로(%)

구분	식료품비중	비식료품비중
상업구조(수입업체 등)	69	61
개인	15	23
국가구조(국영업체 등)	10	11
거래소, 기타	5	5

자료 :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 1996.

수입상이 창고에 적립하여 도, 소매상에게 현금을 받고 상품을 출하하며 수입상이 도매상에게 일괄하여 전매하고 도매상이 각처의 소매상에게 산매한다.

(2) 유통단계

일부제품(전자제품, 고가품)외에는 도매상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수입상이 바로 자기소유 소매상을 통해 상품에 팔거나 소매상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도소매상 간에는 30% 내외의 마진이 있다. 현지 도매상은 민간업체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마진과 독특한 관행으로 수입상이 소매상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의 마진은 보통 30%-100% 이다. 소매상은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40%-100% 이상의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지역별로 독점권을 부여하고 세일즈 지원(광고비 지원: 판촉물 지원 등), 엔지니어 한국 초청교육, 전시회의 공동 참여, 대리점망의 지역별 확대 등이 판매증대의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

(3) 백화점, 소매점

모스크바에 Gum(GUM)과 Chum(CHUM)이라는 대형백화점 이외에 4-5개의 대형백화점이 있으며 과거에는 국영이었으나 최근 민영화되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업체들에게 일부의 매장을 임대해 주기도 한다. 일반 소비자들은 백화점에 잘 안가고 중산층 이상이 백화점을 많이 이용하며 백화점은 정찰제이고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다. 이에 대하여 일반 상점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고 값을 깎을 수도 있다.

III. 러시아 관습

1. 종교생활 및 민족성

러시아인의 약 50%가 러시아정교를 신봉하여 일요일에는 3번 교회에 참석한다.(오전 8시, 정오 12시, 저녁 6시 등) 촛불을 가지고 서서 예배를 하며 여성은 설교 강단 중심부로 의 접근 불허하며 결혼할 경우 신자는 교회에 공식등록을 하며 출산 시에는 어린아이를 성수로 침례시키고 이혼은 불허한다.

러시아정교의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7일이며 매년 2월말-4월말 기간 중에 6주간의 금식주간을 가진다. 이 기간 중에 간단한 식사만 하고 육류, 동물성기름, 알콜음료, 설탕 등을 일체 먹지 않고 금식주일이 끝나면 1주간 부활절(Easter)이 시작되며 특히 첫째날을 축하하며 많이 먹으며 교회가 지정 선포한 성인 (20여명)에 대한 축하의식을 행한다.

종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러시아인의 경우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적이며 수세적이고 관용성이 많고 인정이 많으며 사교성이 좋고 명랑한 기질이다. 예의 바르고 참을성이 대단하며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가족제도를 선호한다. 술을 아주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며, 파티에는 정장으로 참석하여 서로 어울려 춤을 추는 것을 즐긴다.

결혼은 최근 물질주의적으로 흐르고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8세(법정허용 연령)의 조혼경향이 있으나 근래엔 다소 늦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조건에 있어서는 약혼이 성행하고 있고, 최근엔 사실혼(동거)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을 위해선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부모의 자녀의 관계에 있어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부모의 승낙(특히 아

버지) 없이는 임의대로 주요결정을 할 수 없다. 자녀는 부모 및 연장자에 대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 가장의 권위는 상당히 커서 자녀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으나 최근엔 이질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가장만이 소득주체였으나 생활난 타개를 위해 근래에는 어머니도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혼의 경우 아이가 없으면 구청에 신청하여 쉽게 합의이혼이 가능하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까다롭다.(이 경우엔 법정이혼만이 가능)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해야하고 그 경우 법원은 3개월의 조정기간을 주어 화해를 시도하나 그래도 안되면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실제로 90%는 어머니가 양육), 집은 어떻게 분할하여 살 것인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이혼 허가한다. 러시아의 이혼율은 세계최고로서 통계청 통계로는 50%선이나 실제로는 70%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남성의 결혼후의 불성실과 방종(남비벽, 주벽 등)에 따른 성적 불만 및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이혼은 주로 여자측에서 제기한다. 이혼시 아버지는 아이가 1명 있는 경우엔 수입의 25%,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의 50%까지를 자녀양육비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매월 지불해야 한다.¹¹⁾

2. 예절

러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경로우대사상이 강하여 가정생활에서도 식사시 연장자가 식사 시작을 하기 전에는 아이들은 식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연장자에 대한 우대심리가 강하나 최근의 현실은 젊은 사업가나 정치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래의 전통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편이나 구소련 당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이러한 의식이 많이 희석되었다. 특히 여자들도 직업을 갖고 경제권을 보유함에 따라 여성의 발언권이 많이 커졌고 최근에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 남녀평등사상이 한층 보편화되었으며, 일부 가정생활에서는 여성의 영향이 더욱 큰 경우도 많다.

서구적인 여성 존중의 에티켓이 일상화되어 있다. 자동차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성을 먼저 타게 하며, 여성이 외투를 벗을 때에는 남성이 받아 주고, 실외로 나갈 때는 남성이 문을 열고 여성을 먼저 나가도록 한다.

축제일 및 명절에는 약 5달러 내외의 책이나 옷 등 상징적인 선물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신뢰성 및 관공서 일처리

합작투자 또는 거래파트너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외형

11) 허승철·이항재·이득재, 「러시아 문화의 이해」, 대한교과서, 1998년.

상 신뢰할 만 하여도 과거의 실적 신용상태, 주위의 평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상당시 무조건 자기를 믿고 외상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되며 상담시 러시아인의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상담시 러시아인의 자금조달능력, 인력기술수준 등에 관하여 철저한 점검, 파악이 긴요하며 또한 자금의 향방에 관한 철저한 추적관찰이 긴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나 그러나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상담시 철저한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언어(영어 또는 러시아어)소통이 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공서 일처리는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할 정도로 공무원의 서비스 태도는 지극히 거칠고 빈약하며 자기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한 움직여주지 않고 무언가 반대 급부를 주어야 한다. 뇌물없이 지극히 사소한 일도 잘 안되며 참고로 신문에 공개되는 자료라도 요청하면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따라서 뇌물을 다소간에 주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신속하게 일이 처리된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태도로 인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적절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 기타

청소년 및 성인남자의 80%정도가 축구를 매우 좋아하고 아이스하키, 크로스컨트리 스키가 성행하고 있다. 여자들은 전통적으로 피겨 스케이팅을 가장 좋아하고 최근엔 테니스도 유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팝송, 오페라, 발레 등을 좋아하며 최근엔 청소년층을 위한 디스코텍이 각 지역에 번창하고 있다. 빈곤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이 교외에 다차(DACHA)라고 하는 별장을 갖고 있어 주말(금요일 오후)엔 거의 대부분 다차로 가서 각종 채소가꾸기, 화단가꾸기 등 정원손질에 열중하며 이슬람교가 아닌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가 된 이유가 술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¹²⁾이라고 할 정도로 보드카를 좋아하며, 술자리에서 대화를 즐기는 편이다. 러시아인들은 애완동물로 개를 무척 좋아하여 개를 끌고 공원이나 길거리를 산보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음식, 언행 등에 있어서 외국인이 금기해야 할 사항은 없다. 다만 러시아인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므로 빈곤한 생활상을 들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IV. 한 · 러간 무역결제

12) 러시아인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슬람교가 음주를 금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허승철 등, 전개서, p. 140)

거래 및 결제방식에 관련된 무역관습으로는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범 및 관례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3)”와 “상업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78)”이 있다.¹³⁾ 한·러간의 경험과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양국간의 무역결제방식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용에 기반을 둔 상거래보다는 현금 및 구상무역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무역결제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한국과 러시아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제방식 및 상관습에 대하여 고찰한다.

1. 한·러간 무역결제

(1) 무역결제 방식

일반적으로 무역대금의 결제방식을 그 지급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①신용장 방식(letter of credit basis), ②추심 방식(collection basis), ③송금방식(remittance basis)에 의한 결제, ④국제팩토링방식(international factoring basis)¹⁴⁾ 등 기타 특수한 결제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¹⁵⁾

첫째, 신용장 방식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으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beneficiary)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함은 물론 금융적 불편이나 신용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둘째, 추심 방식은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과 어음인수 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Document: D/A이 있는데, 은행이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은 없이 오직 수입상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서¹⁶⁾를 근거로 대금 추심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출상에게는 결제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본 지점 및 현지법인간의 거래나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간에 선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한·러 무역이 이러한 조건의 외상거래로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셋째, 송금방식은 계약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상이 수출상 앞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수입상에게는 물품인도를 받기 전에 대금전액을 송금해 준다는 것은 금융비용부담 등 자금부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제방식이라 할 수 있다.

13) 최용수, 「국제상관습의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88년.

14) 국제팩토링방식도 광의로는 추심 방식으로 볼 수 있다.

15) 또한 결제방법에 따라 선 지급(주문 지급), 일부선 지급, 누진지급, 선적서류상 환급, 상호 계산 환어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화를 담보로 한 화환어음의 방식이 이용된다. (무역대사전, 한국출판 문화공사, 1998. 4, p. 1291 인용)

16) 일반수출계약서와 구별하여 선수출계약서라고도 한다.

송금방식에는 송금우표(Demand Draft: D/D),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M/T),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 등과 같은 지급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이 밖에 팩토링회사(factor)가 판매자(client)가 구매자(Customer)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 관련 신용위험의 인수, 전도금융의 제공, 회계처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무신용장방식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서의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에 의한 결제방식, 환어음 없이 서류 수수 및 물품확인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인카소(INKASO)¹⁷⁾, 출판물이나 과학기재 등 특수목적거래에 배정 받은 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유네스코 쿠폰(UNESCO coupon)방식 등이 있다.

(2) 러시아 대금결제 방식

러시아는 일반적인 대금결제 방식으로 현금방식의 인카소(INKASO)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인카소 방식이란 CAD¹⁸⁾와 유사하지만, 수입상이 서류인수는 물론이고 물품을 확인한 후에야 대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또한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점이 일반적인 신용거래인 D/A나 D/P와 다르다. 이 인카소 결제방식은 다음과 같다.¹⁹⁾

가. 일람불인카소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결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명칭은 일람불(at sight)이라고 하나 수입상의 물품확인을 위해 30~45일 후에야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기간 중의 이자를 수출물품가격에 반영하게 되므로 D/P방식과 유사하다.

나. 은행보증부 인카소

이것은 국영기업인 현지수입상이 계약물품의 품질·적기도착 등 거래위험을 피하기 위해 수출상에게 은행의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수출상은 세계일급은행을 통해 이행보증(P-Bond)을 6개월 정도 설정해 주고 있는데, 보증 금액은 수출금액의 0.5~5%수준이 된다.

다. 예치 인카소

이 방식은 수출대금을 추심할 때, 예들 들면 대금의 일부를 러시아은행에 예치(retention)해 주는 방식이다. 수출금액의 3~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예치기간은 물품하자에 대한 클레임(claim)기간에 따라 8~12개월에 이르며 만기일에 환불받

17) 러시아지역 무역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18) 서류상환지급방식(cash against document: CAD)은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하고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사업송장,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서 일종의 D/P 거래의 유럽방식이라 할 수 있다.

19) 박대위, 「무역실무」, 법문사, 1991, p. 425.

게 된다.

라. 연지급 인카소

이것은 수입상이 물품인수 후 30~75일의 연지급 기간을 설정하는 거래로 실제 결제기간은 6~120일이 걸리게 되므로 수출계약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러시아의 교역형태가 L/C 거래방식이 아닌 현금거래, T/T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경화의 부족, 은행체계의 미비 및 신용부채 등 정상적인 L/C 거래가 곤란한 상태이며, 제3국이 발행한 L/C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2. 한·러 무역결제에 대한 대처 방안

(1) 韓·러 무역과 대금결제 문제점

현재 국내 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로 1998년 4월말 현재 약 1억 2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당장 모라토리엄²¹⁾으로 인한 피해²²⁾는 없지만, 러시아가 외환위기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을 경우 투자손실은 피할 수 없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1997년 총 수출의 1.2%인 17억 6천 7백만 달러(수출: 17억 7천만 달러, 수입: 1억 달러)였으며, 1998년 상반기 수출은 7억 3천만 달러, 수입은 5억 1천만 달러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달러對 원화의 환율이 크고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이전에 중개무역 형태인 보따리 무역²³⁾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루

20) http://www.kotra.or.kr/index_kor.html.

21) 러시아 중앙은행은 은행간 외환거래소(MICEX, 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에서 달러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8월 26일에 달러화 거래중단, 27일 이후에는 모든 외환거래를 중단하였다.

22) 한국은 1996-1997년 러시아 단기국채 투자에 대한 높은 수익으로 러시아 모라토리엄에 대한 손실은 없다. 1996년 러시아 국채 연간 수익률은 200%로 한국은 러시아 단기국채 투자로 많은 이익을 보았으며 1998년초 40-50억 달러의 투자 자본 중 30-40억 달러 이상이 회수하였다. 따라서 각 기업별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단기국채 투자손실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 Matsegora, "Russia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9th APEC-IFES Joint Conference: New Governments in Korea and Russia and the Prospects of Korean-Russian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Asia-Pacific Research Center, The Graduate School of Asia-Pacific Studies, Hanyang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23)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광활한 지역 전체에 대한 상품 공급을 원활하게 담당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이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도기적인 단계로 보따리 무역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러시아 내의 수입관세 및 내국세가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수입은 마진율이 떨어지고 아울러 러시아의 세관 법규 미 정비 및 세관원들에 대한 뇌물 수수 등으로 관세의 기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물품을 위장한 수입상(보따리 장수)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축적된 자본도 없고 동원할 수 있는 자본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 터키, 인도, 폴란드 등의 저 가격 인접 국가와의 소규모 무역과 그것의 국내 유통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근래 원화 가치의 하락과 관련해서 '보따리 장수'들을 통한 비공식적인 무역은 약 5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재영, 「월간무역」, 1998, 7, pp. 48~49)

불화의 쉼미 달러환율이 떨어지자 보따리 무역상의 발길이 드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러시아의 대금결제 방식으로 현금거래²⁴⁾나 T/T대금 결제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신송금환(T/T) 대금 결제방식은 1주일 이상이나 소요되는 송금기간과 외국 은행에 대한 2.5~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기업간의 대금결제 지연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韓·러 무역결제의 대응 방안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와 무역에 있어 무역결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단기적으로 외화표시 자산을 확대하고 판매 대금을 즉시 외환으로 환전하는 것이고 수출미수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편화된 러시아의 외상수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다. 즉,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러시아측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은 지불증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거래나 OECD 국가 은행이 보증한 신용장만을 수용하도록 하며 러시아 기업인의 낮은 신용도를 고려하여 상담시 외상거래 요구를 할 경우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첫째, 러시아의 주요은행과 한국상업은행간의 코러스(cores)²⁵⁾관계를 구축·확대해 나간다. 둘째, 신용도가 높은 러시아은행이 발행하는 L/C를 상업은행들이 인수한다. 셋째, 수출보험 인수한도 확대 및 인수 적격은행을 확대한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하여 양국간의 대금 결제의 원활화 및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한국은 對러시아 교역에 있어 무역을 확대하여 흑자를 유지하고 국제수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고 보완적인 양국의 무역확대를 통하여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V. 韓·러 현황과 향후 전망

1. 한국과의 관계

현재 한국과 러시아와의 교역규모는 양국의 기대에 비해 저조하며 이러한 추세는 한국의 IMF충격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등 양국의 국내외 악재로 인하여 위축되어있다. 또한 양국의 구소련 경협차관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최근 김대중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따라 양국의 우호관계는 회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은 1999년 5월 나훗트카공단 건설, 산업기술협력확대, 韓·러자원 협력강화에 대한 합

24) 현재 정치·경제적 불안정, 조세회피, 불완전한 은행제도, 비공식적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현금 요구, 공급자, 수요자의 필요 등으로 현금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С. Аукудионек, "Бартер в россий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февраль 1998)

25) 코러스(cores: correspondent): 은행간의 어음 결제 관계가 있는 대상은행을 cores 또는 코러스 은행(cores bank)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정확히 말하면 correspondent bank이며 우리말로는 거래 은행이다. (무역대사전, 한국출판문화공사, 1988. 4, p. 415)

의를 이루었으며²⁶⁾ 결제기간 2년미만의 단기수출거래에 한해 러시아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협력기구(OECD)국가에 본점을 둔 13개은행²⁷⁾이 발행한 신용장 또는 지급보증거래에 대해 러시아 수출보험을 재개하였다.²⁸⁾

(1) 30억달러 경협내용

<표 - 13>

	규모	대 주	차 주	지급보증	집행내용
은행차관	10억 달러	산업은행 등 10개은행	CIS, 대외경제은행	독립국가연합(CIS)	91.5월 미화 5억달러 집행 91.11월 1차분 이자수금 91.5월부터 이자연체 92.11월 연체이자의 알루미늄 상환 합의
소비재차관	15억 달러	수출입은행	상 동	상 동	91.12월 4억 7천만달러 승인, 이중 4억 4천만달러 집행 91.12월말 융자증단 92.11월 17일 러시아 연체이자 지급
플랜트차관	5억 달러	상 동	상 동	상 동	미지급

한국이 구소련에 제공하기로한 30억 달러의 경협차관 중 14.7억 달러만 집행하고 중단이며, 1993년에 러시아정부는 2차에 걸쳐 소비재 전대차관 연체이자와 현금차관 이자분 3천만 달러를 알루미늄으로 상환되고 1994년 9월 4일 한·러 양국은 러시아의 경협차관 상환 연체금(3억 7800만 달러)의 현물상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방산물자와 원자재를 50:50의 비율로 제공기로 함) 이후 1995년 7월 상기 93년만기 도래 원리금 4억 5천만 달러를 1998년말까지 알루미늄, 철강 등 원자재와 헬기 등 방산물자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 7월 러시아측의 사정상 공급하기 곤란한 철강제품(1억 1910만 달러)을 알루미늄, 헬기, 농축우라늄으로 대체해서 상환하기로 95년 7월의 합의사항을 수정하였다.

26) 나훗트카 한·러공동 건설을 위한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측은 1단계로 20ha(6만평)을 협정 발표일(1999년 5월 28일)부터 6년내에 건설하고 이후 5년내에 2단계로 총 330ha 규모의 공단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이 공단에 입주할 경우 건설공사 소요기자재 반입시 관세, 조세를 면세받고 제품을 50%이상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법인소득세(이윤세), 부가가치세를 면세 또는 감면하여 준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이윤 발생후 5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면제하며 부가가치세는 공간에서 생산하여 러시아 영토내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50% 감면한다. 또한 토지공사의 이윤세를 총투자비 회수시까지 면제하는 조항과 러시아 영토내에서 공단으로부터 수입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항도 추가되었다. (무역일보, 1999년 5월 29일)

27) 13개 OECD은행: ABN AMRO, ING Bank(네덜란드), Deutsche Bank, Dresdner Bank, West Deutsche Bank(독일), 조흥은행(한국), Credit Suisse(스위스), Chase Manhattan, Citi Bank, National Bank of NY(미국), Reiffsen Bank Austria(오스트리아), Credit Lyonnais, Societe Generale(프랑스).

28) 무역일보, 1999년 6월 1일.

이에 러시아정부는 1998년 8월까지 93년 만기 도래 원리금 중 2억 8200만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방산물자와 현물로 상환하였고, 나머지 1억 68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상환을 지연하였다.

이후 한국정부는 98년 9월과 11월 러시아정부와 두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1998년말까지 러시아가 상환해야 할 미지불금 1억 6800만달러 중 4700-6300만 달러를 연내 알루미늄과 구리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나머지 미지불금이 원활히 상환될 수 있도록 상환품목도 총 52개로²⁹⁾ 확대하여 선정하고 상환기간도 99년말까지 1년 연장해 주었다. 그리하여 1999년초 현재 93년 도래분 가운데 3/4이 넘는 3억 4910만 달러를 상환받았다.

그리고 양국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만기도래하는 원리금 16억 달러(이중 원금 12억 달러, 이자 2억 달러, 연체료 2억 달러)에 대하여는 1998년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양국이 실무협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환방법과 일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1999년 1월 한국은 1994년 이후 만기도래분의 리스케줄링에 대한 입장을 러시아측에 전달하였다. 즉 한국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단없이 차관을 상환받을 예정이고, 차관회수를 양국의 교역 및 경제활성화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러시아가 차관을 지속적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자 및 거치기간 등 상환조건과 관련된 세부사항에서 최대한 신속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러시아 경협차관과 관련된 국내 10개은행의 외국은행에 대한 이자는 연평균 6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어 처음 5년간 3억달러가 이미 지불되었음을 고려할 때 양국의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2) 양국간교역

한국과 러시아간의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이후 증가하였으나 1997년을 기점으로 수출은 감소추세로 수입은 1996년부터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8년 외환 및 금융위기 등 양국의 국내외 악재로 인하여 더욱더 위축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경제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수입수요가 감소된 점 이외에도, 지금까지 대러 수출의 70%를 점유하는 자동차, 가전제품, 소비재의 러시아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데다, 대만 등 경쟁국들부터 공급되는 중저가 상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철강, 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 등의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한 수입수요의 경기위축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반적인 대러시아 수입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방문 이후 양국의 교역을 증대시

29) 잠정적인 상환품목은 철강제품(11개품목), 화학연료(9개품목), 원자재(20개품목), 수산물(4개품목), 비료(2개품목), 군사장비(6개품목) 등 6개분야의 52개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원리금 상환연기에 대한 99년도 이자도 연리 5.5%로 합의되었다. (이재영, "대러시아 경협차관의 회수 및 경협 활성화방안", 한·러관계 재조명 학술대회)

키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 14>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수 출	118	601	962	1,416	1,968	1,768	1,113.8
(증감율)	(-)	(409.1)	(60.0)	(60.0)	(39.0)	(-10.1)	(-37.0)
수 입	75	475	1,230	1,893	1,810	1,504	998.6
(증감율)	(-)	(12배)	(26.1)	(53.9)	(-4.4)	(-16.9)	(-34.9)
수지	+43	-374	-268	-477	+158	+264	+115

자료 : KOTIS, 1999.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칼라TV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 과자류 등 식품류이며 수요 수입 품목은 알루미늄 등 원자재로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시장 규모로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1994년 수입은 공식통계상 8억 달러에 불과하나 보따리 장사 등 비공식수입을 포함할 경우 4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 15> 한국의 러시아 주요 품목별 수출입

(금액단위 : 백만 달러, %)

對러시아 수출 10대 품목				對러시아 수입 10대 품목			
품 목 명	1997	1998(1~2)		품 목 명	1997	1998(1~2)	
	금 액	금 액	증 감		금 액	금 액	증 감
칼라TV	210	31	-22.4	알루미늄괴	160	66	54.3
비디오테이프	42	9.8	23.9	카프트락탐	124	21	32.2
블라우스	34	9.3	*	고 철	59	7.4	112
과자류	64	7.7	-19.8	부틸 고무	35	6.1	12.4
병커피	16	6.4	-7.7	원 목	76	6.1	-33.6
향신료, 조미료	41	6.4	-2.2	경 유	1.3	5.9	*
여성바지, 스커트	29	6.2	137	유연탄	4.2	5.1	*
수산가공식품	32	6.1	110	열연 강판	27	4.6	33.9
승용차	208	6.1	-67.5	어 란	63	4.4	-49.9
자동차부품	41	40	*	BILJET	120	4.3	-74.3

주 : MTI 코드 6단위, 98년 수출 실적 기준.

자료 : KOTIS, 1999.

(3) 對한국 관세장벽

관세 장벽으로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³⁰⁾ 혜택을 받음으로써 수입관세율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선진국에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의 75%를 적용받는다. 비관세 장벽으로 물품세는 10- 80%, 부가가치세는 20%, 안전규격 증명서 규제(육류, 전자제품 등 150개 품목)가 있다.

나훗트카 한국 전용공단 설립을 추진하여 한국정부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방 나훗트카 자유경제지대내에 100만평규모의 한국 전용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규모가 5만 평으로 조정되었다. 1995년 3월 공단부지의 사용권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공단 참가업체에 제공할 특혜사항 관련 정부간 협정체결을 추진 중이다.

자원개발 협력문제로 러시아측은 자원개발 협력을 위해 23개의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주로 천연가스, 목재, 광물자원 등의 분야이다. 러시아는 자원 대국이지만 이의 개발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공동개발을 제의하고 있고 러시아가 제안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야쿠트 가스전" 개발전이다. 야쿠트 가스전의 개발전은 1990년대초부터 민간기업 수준에서 검토되어 왔는데, 개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가스관의 부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순수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역부족이므로 정부에서 개입하게 되었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방문시 한·러 양국정상은 양국이 1천만 달러씩 투자하여 야쿠트 가스전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기로 합의하였다.

2.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

(1) 한국상품 인지도

한국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높으며 긍정적이다. 즉 가격은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반면 품질면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초기에 형성되었던 지나친 고평가(일본보다도 잘사는 나라 등)는 사라지고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한국업체의 재고품 밀어내기씩 수출에 따라 인지도가 악화되는 면이 있다.

<표 - 16>

품목별	평가
자동차(승용차)	품질이 좋고 (일본산 수준) 값은 저렴
TV와 VCR	품질은 중급이상 (일본산에 육박)인데 값은 저렴
앙고라 스웨터	품질 및 디자인 우수하며 값은 적당
혁제외투	품질은 터키산, 동구산에 비해 우수하며 값은 경쟁적

30)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대상(代徵)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적인 대우를 하는 제도. (경제신어사전, 매일경제신문, 1991년)

상표면에서 볼 때 삼성(SAMSUNG), LG전자(GOLDSTAR), 현대(HYUNDAI), 대우(DAEWOO) 등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매우 낮다. 경제권별로는 극동, 중부, 북서부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자제품이 수요가 있으나 일본 등 선진국 전자제품의 진입과 홍콩 등 개도국 제품의 저가공세로 인하여 그 지위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2) 효율적인 마케팅 및 상담요령

러시아에서 최근 설립되는 개인기업들은 무역거래 경험이 적으므로 절차상 시행착오가 빈번하며 따라서 가르쳐 주어가며 거래를 해야 한다. 러시아 소비재 시장에서는 품질이 조악한 중국산 염가제품이 많이 유통되었으나 이에 식상한 바이어들이 점차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영어가 가능한 수입상이 별로 없으므로 현지에 출장을 가는 경우 통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러시아의 영토가 광활하여 모스크바에서 전국을 커버할 수 없으므로 지방권역별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중요 경제지역에 1인 지사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구전을 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합작투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파트너 선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즉 파트너의 과거 경력, 신용, 실적과 재정능력 및 주위의 평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러시아 기업인들은 자본주의적 경영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러시아 파트너는 형식상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운영과 결정은 한국측 투자자가 해야 한다. 인사관리면에서 많은 애로가 예상되므로 (예컨대 잦은 결근, 지각, 음주, 태만, 절도행위,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현지인은 자존심이 대단하므로 이를 건드리지 말고 배려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원부자재 조달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예컨대 원부자재의 적기 공급불가 또는 부족,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며 반드시 마피아집단의 요구가 예상되므로 협상을 잘해야 한다.(보통은 이익금의 30%를 매월 정기 상납하도록 요구함) 또한 세금관계에 함정이 많으므로 철저한 세무관리가 필요한 바 특히 러시아측 파트너의 세무관련 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이전트망을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진출 방안이며 몇개의 상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력 도·소매업체를 발굴하여 에이전트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통체계는 국영조직이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 민영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도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시장에의 신속한 진출을 위해서는 광고가 필수적인데 효율적인 광고방법은 TV 및 라디오를 통한 광고, 입간판이나 광고판 설치 등이며, 전문전시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수입규제 등과 관련하여 현지 전문번호사(30분에 약 100달러)나 컨설턴트(과거정부고위층 인사)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저급품으로는 중국 등 동남아산과 경쟁이 안되므로 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으로 마

캐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에어전트가 아닌 현지인을 세일즈맨으로 채용하여 기본급여 외에 성과급을 주면서 적절히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주로 이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러시아 상담시 주의 사항을 소개하여 본다.

가. 자기소개를 겸손하게 먼저하고 자기 사업을 명확하게 소개한다.

나. 상담시 엄격한 조건제시는 금물이며, 처음엔 유연하게 대처한다.

다. 러시아인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므로 절대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예컨대 러시아의 현재의 빈곤, 한국의 잘사는 상황 등)을 해서는 안된다.

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지 술인 보드카를 1-2회 같이 마신 후에야 흥금을 털어놓는 기질이 강하며 러시아가 자랑하는 예술, 문화에 대한 칭찬같은 것을 하면 좋으며 대체로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농담은 잘 안한다.

마. 이민족에 대한 특별한 배타성은 없으나 최근 서방의 영향을 받아 동양인 및 흑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한편 외국인은 잘살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현지인에게 부과하는 요금의 몇배를 더 부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호텔료, 항공운임, 미술관 입장료 등) 최근 체첸공화국 사태가 러시아 대 이슬람세력이라는 대결구도로 확대 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이슬람교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편이다.

바. 초면에 만났을 경우 악수와 성명교환하며 대화 중 상대방 눈을 직접적으로 응시하고 다른 곳을 보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한다. 명암을 중요시하며 명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외에 어긋난 것으로 여기며 모국어와 러시아어로 표기되도록 한다.

사. 개인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국영기업이 존재하며 따라서 적절한 선물과 지루한 기다림, 다량의 서류 요구, 불친절, 유연성 부족이 있다. 그러나 향후 개인기업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고 시장원칙에 순응하는 사업가들이 출현하고 있다.

아. 상담전에는 간단한 시사적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며 의사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자. 19세기 농민공동체의 전통을 통하여 경험한 러시아의 집단주의 전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집단주의로 표현되었고³¹⁾ 현재 러시아에서 많은 영향력을 지니며 러시아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족주의 세력 역시 러시아 전통적인 집단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의사결정은 위원회에서 천천히 이루어지며 위원회는 각 사안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게다가 모든 계약은 성사전에 서로간 인적유대를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차. 디너쇼, 음주는 러시아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수행비서 불친절과 불성실로 러시아에서 모임의 섭외나 메시지 전달이 어려움이 있다. 즉. 만날 약속전에 수차례에 걸쳐 약속 확인 필요하며 구두약속보다는 문서형태로 확인(written confirmation) 하는 것이

31) 김우승, "러시아 사회 구조와 집단주의", 『러시아·러시아인』, 민영사, 1998년.

효과적이며 사전통지없이 수시로 약속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상담시 양자사이에 통역을 배석시키지 않아야 하며 통역자를 보지말고 상대방을 보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남녀간의 장벽은 상당부분 제거되어 여성이 남성과 직업을 공유하고 있으나 '머리는 길지만 지혜는 짧다', '암탉은 닭이 아니고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두드리면 드릴수록 수프는 맛있어 진다' 등의 속담이 있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차별 사상은 존재하여 남녀간 구분이 엄격하며 다수의 러시아 남성은 상급자로 여성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 공식적 저녁행사에서 될수록 정장을 하여야 하며. 러시아인들은 구두, 양복 등 사람의 외양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에서 좋은 시계와 구두는 그 신분을 표시하나 값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의상을 피하는 것이 좋다.³²⁾

파.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조직내 권위주의는 상당한 수준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로서 중앙집권적인 체제 아래 강한 가부장적인 전통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러시아조직에 있어 '높은 사람'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들의 가부장적인 권위는 최고위직이라는 형식만으로 이미 공고히 확보되며 그들 대부분은 그 조직내에서 수십년간 자라 온 터줏대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의 내부사정에 정통하여 형식과 내용면에서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최고위자 부재시에는 모든 결정이 유보되는 것도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러시아의 의사결정이 집단체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각 담당자들은 각각의 지분을 배경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최고위자도 책임의 분산을 목적으로 각 분양의 책임자들이 공식적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고위자의 의대로 의견이 수렴되고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담당자 존재를 가볍게 처리할 경우 거래가 증도에 무산되거나 최고위자와의 상담이 어려워지는 등 역기능이 발생하기 쉽다. 이들은 실제로 결정을 내릴 위치가 아닌 데도 합의를 하거나 진지한 사업을 제안한다. 이는 담당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제스처이며 따라서 사전에 거래선 조직내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당급 책임자에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³³⁾

하. 러시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식적이고 법적인 접근방식보다는 비공식적인 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러시아 담당자는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상대방에게 대한 공식적인 배상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3. 전망

32) Business Culture, "Global Road Warrior Russia", 01-15-1998.

33) 삼성인력개발원, 「귀입주채원 테마연구 제436호」, 1997.

국제무역거래에서 상대국의 국민성 및 상관습, 상술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기호에 맞는 거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무역거래에서 상대방국가의 국민성 및 상관습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나 문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는 지리적·정치적·경제적·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수십년간의 단절로 인하여 양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국 국민성 및 상관습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민성, 상관습을 숙지하고 이들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한다면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으며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먼저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러시아는 약 1억 5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광대한 시장이며 천연자원 또한 풍부한 편이다. 소비특성으로 저축보다는 내구재 및 식료품 소비가 많아 엔겔지수가 70-80%에 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1992년 개혁 이후 특정집단의 부의 독점화 현상은 심화되어 '노브이 루스키'라고 불리는 고소득층이 형성되었으며 모라토리엄 이후에는 이전보다 빈부격차는 확대되었다.

모스크바 및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입상-도매-소매 등 3단계 형태보다는 수입상에서 소매상으로 이루어지는 2단계의 유통단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인들의 관습을 살펴보면 러시아인들은 19세기 농민공동체의 집단주의적 전통을 통하여 러시아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자치적이며 평등에 기초한 삶을 가지고 그들 나름의 공정분배에 기초한 도덕성이라는 가치체계를 구성하였다. 즉 이를 통하여 토지의 분배, 납세의 집단평등, 이를 위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적 운영 그리고 공동체 규범을 어기거나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집단 처벌 등을 기초로 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소비에트 애국주의'로 불렸으며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에는 '러시아 민족주의'라는 모습으로 지속되어 왔다. 러시아인들의 이러한 집단주의적 전통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서열을 중시하며 평가하는 특성, 그리고 개인보다는 전체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사결정과 책임분산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과 국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러간 무역시 발생할 수 있는 무역결제방식과 그의 대처방안을 알아본 결과 일반적인 무역상관습인 신용장거래는 양국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주로 현물 및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무역결제 방식은 양국의 무역확대에 장애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양국의 무역확대를 위하여 첫째, 러시아 주요은행과 한국의 은행간 코러스 관계를 구축·확대하며, 둘째, 러시아 은행의 신용장의 한국 은행 인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수출보험 인수한도 확대 및 인수적격 은행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양국간의 무역확대 장애요인의 제거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소 경협차관이다. 한국은 총 30억 달러의 경협차관 중 14.7억 달러를 집

행하였고 이에 러시아는 1993년 만기 도래 원리금 4억 5천만 달러를 1998년말까지 원자재와 방산물자로 분할·상환을 약속하여 1998년 2억 8,200만 달러는 방산물자와 현물로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1억 6,800만 달러는 상환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추후 협상을 통하여 1999년초 현재 러시아는 3억 4,910만 달러를 상환하였다. 여전히 경험차관은 양국의 경제협력 증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나 양국은 우호협력을 증대하고 교역 및 경제활성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욱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모라토리엄 이후 양국의 구매력 감소와 러시아내 한국기업의 경쟁력 저하라 할 수 있다.

1992년초 형성되었던 한국기업에 대한 상품인지도는 현재까지 긍정적이나 점차 러시아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선진공업국 제품에 비해 품질이 낮게 인식되고 있고 중국 및 동남아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마케팅 및 상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진출 방안으로 수입 대리점(에이전트)의 지역별 확대와 유통도·소매점의 발굴로 들 수 있다. 또한 광고의 급격한 성장으로 TV와 라디오, 입간판이나 광고판 설치, 전문전시회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상담요령으로 크게 첫째, 겸손한 자기소개와 명확한 사업소개, 둘째, 상담시 유연한 자세와 러시아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칭찬, 셋째, 인내심과 구두보다는 문서화한 약속, 넷째,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파악 등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양국의 무역확대를 위하여 양국의 무역부문에서 보면 무역결제시 러시아의 외환확보와 신용획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하지 못한 무역결제 수단의 확대를 성취할 수 있으며 또한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교역의 증대를 위하여 현지 시장 및 러시아인에 대한 인식의 재고 등을 통하여 정보의 획득과 단기적 접근방식보다는 장기적 접근방식이,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무역보완구조를 가지고 있는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우승, "러시아 사회 구조와 집단주의", 『러시아·러시아인』, 민영사, 1998년.
강원진, 『무역실무』, 박영사, P. 17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러시아 편람』, 1996년.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 1996.
매일경제신문, 『경제신어사전』, 1991년.
무역일보, 1999년 5월 29일.
_____, 1999년 6월 1일.
박대위, 『무역실무』, 법문사, 1991년.
박찬익, "사회주의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비교경제연구』, 통권 5호, 한국비교경제학회, 박영사, 1997년.

- 삼성인력개발원, 「귀임주재원 테마연구 제436호」, 1997년.
- 이재영, 「월간무역」, 1998년, 7월.
- _____, “대러시아 경협차관의 회수 및 경협 활성화방안”, 한·러관계 재조명 학술대회), 1999년, 6월.
- 윤덕현, “한국기업의 구상무역현황과 전략적 대응관리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논문집」, 제5집,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1994.
- 최용수, 「국제상관습의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88년.
- 한국출판 문화공사, 「무역대사전」, 1998년.
- 허승철·이항재·이득재, 「러시아 문화의 이해」, 대한교과서, 1998년.
- A. Aslund, *How Russia Became a Market Economy*,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5
- A. Matsegora, "Russia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9th APRC-IFES Joint Conference: New Governments in Korea and Russia and the Prospects of Korean-Russian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Asia-Pacific Research Center, The Graduate School of Asia-Pacific Studies, Hanyang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Business Culture*, "Global Road Warrior Russia", 01-15-1998.
- Peter Murrel, "Evolut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Economics of Planning*, V.25, 1992.
- U.S. Embassy Moscow, *Russian Country Commercial Guide*, 1998.
- Джуффри Сакс,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в России*, Экономика, М., 1994.
- С. Аукуционек, "Бартер в россий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февраль 1998.
- Юрий Полетаев и Дмитрий Шмитов, "Магические бренды", *Монитори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М., No. 6, 11-12, 1998.
- http://www.kotra.or.kr/index_kor.html